

새우잡이 선원 구조, 경찰-해경 진실 공방

광주 서부경찰 “강제노동 3명 구출했다” 발표 해경서 지난달 이미 조사...인권침해 놓고 논란

서부경찰은 3일 직업소개소 업주 6명을 구속하고 3일 직업소개소 업주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이 2주 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들 피해 선원들을 만나 자필 진술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해경이 “인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해경은 “(염전 노예) 등으로 민감한 시기에 그런 조사를 안했느냐”며 “인권 침해”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해당 선주도 “억울하다. 두달 치 임금을 먼저 받아 놓고 한 달도 안돼 일 하기 싫어 나가면 강제 노동이다. 20년 넘게 일했는데 이런 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중노동을

강요받은 선원 구조 사건의 ‘진실’은 뭘까. 치밀한 조사 없이 무턱대고 선원의 말만 믿고 ‘인권 침해 사례’로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서부경찰, “간혀있다”는데 믿을 수밖에 “= 서부경찰은 직업소개소 직원의 표에 넘어가 술집 향응을 즐기다 빛더미를 떠안고 새우잡이 배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남성 3명을 구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각각 목포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임차자의 새우잡이(일명 닻배) 배 업주에게 넘겨진 뒤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무심코 걸려온 경찰의 전화와 받고 ‘간혀있다’며 구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강제노동시킨 새우잡이 업주 등에 대한 처벌

잇걸린 주장들

- 해양경찰 2월20일 임차도 현지에서 조사 강제노동-감금 없었다고 했다
- 서부경찰 3월3일 “간혀있다”며 구조 요청 선원들 호소하는데 믿을 수밖에
- 선주 두달치 임금 미리 받고 나간다니 이게 강제 노동이나-억울하다

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경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부경찰에 앞서, 해양경찰청 광역수사 2개가 직업소개소를 차례로 선원들의 임금을 부풀려 가로채고 새우잡이 배에 넘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직업소개소 운영자 윤모(60)씨를 구속하고 직업소개소 직원인 김모(65)씨와 박모(63)씨 등 전직 경찰관 2명 등을 입건하면서 피해 선원들의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윤씨 등은 선원들을 윤씨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 데리고 가 양주를 먹고 도우미를 불러 유혹을 즐기게 한 후 하루 술값으로 최고 330만원을 청구하는 등 술값·숙박비·생활비 조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당시 윤씨 외에 선원들의 감금·폭행·강제 노동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선주-선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해경의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없었다’는 선원들을 서부경찰은 ‘강제 노동’이라며 구조해 언론에 발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해경 판단이 맞다면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만 믿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고, 서부경찰 말이 맞다면 해경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방치한 셈이다.

해경은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인권

침해 등으로 민감한 시기에 만큼 그런 조사를 소홀히 했겠느냐”면서 “피해 선원들이 직업소개소 업주로 부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것은 맞지만 서부경찰이 구조한 피해 선원 6명 중 3명을 조사할 때 전혀 그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해경은 “불법사행이 없어 조치를 하지 않은데 마치 방치한 것처럼 돼 버렸다”면서 서부경찰이 선원 말만 믿고 무턱대고 인권 침해를 들먹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선주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 선원들 외에 나머지 8~9명의 선원이 있는데 그들은 뭘냐. 물어봐라. 직업소개소가 비용을 부풀려 착취한 것을 제외해도 자기를 스스로 2개월치 임금 명목으로 받아온 뒤 갔지도 않고 일도 안하고 나가려고 ‘강제 노동’이라고 하면 다 믿느냐”고 반발했다. “20년 넘게 일했는데 참파해서 어떻게 하느냐”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일자리 소개해 줄게” 노숙자 60명 피어 염전에 팔아넘긴 직업소개소 업주 영장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 보호 특별수사대는 5일 노숙자들을 유인해 소개비를 받고 염전에 넘긴 혐의(영리유인 등)로 직업소개소 업주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노숙자를 데려다 주고 20만원을 받은 혐의(영리유인)로 B(40)씨를, A씨가 소개소를 운영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월 20만~30만원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C(68)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서울 영등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좋은 일 자리를 소개해준다”고 노숙자 등 60여명을 피어 전남 지역 염전, 김 양식

장, 어선 등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달에 10여명의 근로자를 소개하고 1인당 평균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에게 2~3일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통상 100만원으로 부풀려 구인자들에게 소개비 외의 선급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구청에 기초생활 수급비를 신청해 주거와 생계급여 명목으로 4년여간 210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봄맞이 도로 보수공사 광주시중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5일 광주시 동구 학동삼거리 앞길에서 포트홀(이스콘 파손)이 발생한 이스콘을 걷어낸 뒤 덧씌우기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시중합건설본부는 이번 주까지 학동삼거리~원지고 구간(470m)에 대한 도로포장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출입문 잠금장치 부수고
상가 상습절도 50대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5일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깨부수고 물레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오모(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

월 6일 오전 7시45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이모(33)씨의 A호프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도구로 파손한 뒤 침입해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5회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호프집 안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오씨를 붙잡았다.

‘채용 사기’ 해외도주 교사 이번엔 결혼축의금 사기?

“중국서 결혼하니 축의금 보내달라” 지인들에 문자메시지

현직교사가 정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사건(광주 2월19일자 6면)과 관련, 최근 이 교사가 지인들에게 결혼 축의금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D고교 김모(40) 교사가 지난 4일 오후 12시30분께 대학동문·사회인야구단 등 지인들에게 결혼 축의금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메시지엔 “3월 15일 장가갑니다. 중국 북경에서 예식을 하게 돼서 청첩장을 제작을 하지 않아요. 혹시 축의를 하실 분은 004-000-0000 000 K은행 계좌번호로 이체해 달라. 따로 찾아보고 인사 드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이 K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해외도피 중인 김씨 소유의 계좌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사가 실제 결혼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알 수 없지만 경찰은 김 교사의 아버지가 “이들 결혼

축의금”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도피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5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김 교사 계좌의 통장거래를 중단시켰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종적을 감춘 김 교사가 현 체류지에서 제3국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여권말소를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주 안에 김 교사가 과거 자주 오갔던 필리핀·중국·마카오 등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D고교는 오는 17일 김 교사의 직위 파면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김 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징계위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상태다. 징계위원은 당사자가 출석해 해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재 땀 징계위 명의로 출석 요구서를 두 차례 보내게 됐다. 다만, 당사자가 무응답으로 일관할 땐 징계위가 결정할 대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D고교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 교사에 대한 범죄행위가 일정부분 드러났는데도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면 파면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양세영기자 hot@kwangju.co.kr

국내 범죄자 최다 외국 도피처는 미국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도피하는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 집계된 외국도피사범 수는 76개국 3132명이며 이중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는 7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678명), 필리핀(394명), 태국(238명), 일본(16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 도피범을 종류별로 보면 사기·횡령 등 경제사범이 1천941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살인·강도 등 강력사범 252명, 마약사범 133명을 기록했다.

경찰은 이들 중 47개국에서 998명이 국내로 송환됐고 6일 중국에서 송환되는 피의자 4명을 포함하면 국내로 송환된 외국도피 사범은 총 1천24명으로 늘게 된다고 밝혔다. /연승호

암행단속 경찰인 줄 모르고 호객행위 한 성매매 여성

○~30대 성매매 여성이 사복 경찰관에게 호객행위를 했다 경찰서행.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백모(여·32)씨는 지난 4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A성매매업소 앞길에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던 동부경찰 소속 경찰관에게 현금 7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성

매매 업소로 데려갔다는 것.

○~경찰은 업소에서 업주가 불법으로 술을 팔면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줬다는 백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백씨와 업주를 입건했는데, 담당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암행단속 중이었는데, 여종업원이 상황을 모르고 호객행위를 했다”고 검거 배경을 설명.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특가기획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일대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m ² / 76.42m ²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m ² (≈179.43평)
3층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1164.9m ² (≈352.38평)
4층	사무실 / 학원 365.58m ² 216.87m ² 582.45m ²
5층	아스터어학원 유투엠수학학원 임대확정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전속물건 - 공동중개환영**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2014-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3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현장학습과 함께 하는 「실용도종약초」 수강생 모집

■ 교육일시: 2014년 3월 4일(화) ~ (15주) / 매주 화요일 저녁 7:00 ~ 계속 모집중

■ 강사: 김성희 010-9604-5377

■ 교육내용

- 주변에 자생하는 약초에 대한 생애 및 분류의 이해
- 약초의 성질과 유효성분, 지표성분과의 상관 관계
- 약초 발효액, 발효차, 식초만들기
- 약초의 재배, 채취와 가공 방법
- 현대인의 건강과 healing 도움이 되는 약초

광신대학교 생활한방교육원